

보도 일시	2023. 3. 6.(월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3. 3. 6.(월)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	총괄기획팀	책임자	팀 장 - -
		담당자	사무관 김한승 (02-6260-1212)

서부경남 지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

-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방안과 유통 활성화 등 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모색 -

□ 대통령소속 농어업·농어촌특별위원회(이하 농특위, 위원장 장태평)와 (재)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(이사장 조규일 진주시장)은 3월 6일(월) 서부경남 지역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.

-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‘그린바이오 산업 육성’ 추진 지원을 위해 서부경남 지역 그린바이오 기업인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 발굴, 규제 청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, 지역의 농업인과 가공사업 종사자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식품 클러스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.

* 국정과제 71번 ‘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’ 중 세부 과제(식품산업 육성)

-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, 청년농업인연합회 서인호 회장, 경남 지역 그린바이오 기업 청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하였고, 경상남도 정연상 농정국장,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 등 지자체도 직접 참석하여 경상남도과 진주시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.

□ 장태평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”이라며,

- “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농가와 그린바이오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상품디자인 기획, 제조기술 개발, 마케팅과 수출 등 판로개척까지 컨설팅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산·학·연·관의 공동 생태계, 즉 지역 식품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” 고 강조했다.

□ 진주시 신종우 부시장 환영사에 뒤이어 정영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장의 기조 발제 “경상남도과 진주시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방안” 을 시작으로,

- △ 경상국립대 김선원 교수(시스템합성생물학 기반 농생명바이오 연구방향), △ 주식회사 다나그린 지현근 이사(대체육(배양육) 관련 미래 식품산업 연구방향), △ 슬로푸드영농조합법인 이강삼 대표(농가 소득 증대 및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사례)의 그린 바이오산업 관련 주제발표가 진행됐다.

□ 종합토론에서는 그린바이오 유관기관 및 기업, 대학 간의 협력과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 서부경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.

- 정영철 진흥원장은 “ 향후, 광역 단위 인프라 구축사업인 ‘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사업’ 을 유치하여 농업 기반의 서부경남 지역을 국내 최고의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만들 것”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
-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은 “영세한 농업인들이나 젊은 청년 기업들이 그린바이오산업에서 시행착오를 줄이며 성공할 수 있도록 ‘주식회사 케이에프(Korean Farmers)’ 같은 협동조합 성격의 컨설팅 기업들이 확산되게 노력하고, 진주시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의 그린바이오산업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다” 라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.

□ 토론회 이후, 농특위 장태평 위원장은 경남 지역 그린바이오 청년 대표 40여명과 간담회를 함께하며 현장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.

● (붙임) 3.6(월) 진주 토론회 및 간담회 사진자료